

LG産電(株), 중국 대련에 대규모 종합 생산단지 준공

LG産電(株)(代表:李鍾秀)는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대련 경제기술개발구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규모 종합생산단지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대지 5만평, 연건평 2만평 규모로 건설된 대련공장은 가동 초기에는 승강기, 배전반, 몰드변압기, 진공차단기 등 선진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4개 전략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2천년까지 점차 생산 품목을 늘려 대규모 종합생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LG산전은 대련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공장이 위치한 동북지역에 집중 공급해 초기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에 중국 최대 시장인 화북지역을 공략, 2천년에 5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LG산전은 향후 생산제품을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 국가에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전자식 안정기는 동남아시아 판매와 함께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미국, 유럽시장에도 공급되며, 2~3년 후에는 한국으로의 역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대련공장은

향후 LG산전의 2005년 해외 매출 목표인 67억달러(5조 2천억원) 가운데 36%인 24억달러(1조 9천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총 4천만달러를 투자하였으나, 점차 투자 규모를 확대, 2000년까지 약 1억 4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총 11개법인 25개 분공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생산 기지로는 대규모 종합생산단지로 조성될 대련공장외에 5개 공장을 추가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으로의 모습을 갖춰갈 계획이다.

한편 LG산전은 최근 국내 최대 용량의 몰드변압기를 제작하여 쌍용양회공업에 납품했다.

이번에 LG산전이 제작, 납품한 몰드변압기는 12,500kVA에 달하는 대용량으로 그동안 유입식 변압기로만 사용하여 오던 대용량 수전(受電)설비의 주(主) 변압기를 절연성능 및 방재성이 우수한 몰드변압기로 대체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LG 대용량 몰드변압기는 최적 설계를 통하여 전력비, 유지·보수비 등 비용 측면에서 유입식 변압기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이번 대용량 몰드변압기의 납품을 계기로 향후 대용량 수변전(受變電) 설비에 사용되는 주(主) 변압기가 점차적으

로 유입식에서 몰드변압기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돼 대용량 몰드변압기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電線(株), 네트워크사업 대폭 강화

LG電線(株)(代表：權炆久)의 네트워크 부문이 조직과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사무실도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시내 중심가의 LG 역전빌딩으로 이전하는 등 네트워크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LG전선은 LAN(근거리통신망), CATV, 무선통신 등 네트워크 부문의 경우 제조업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전선사업과 성격과 사업환경이 전혀 달라 차별화된 사업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사업群으로 독립시켜 사옥 이전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LG전선은 '80년대부터 국내에 LAN을 최초로 보급하고 국세통합 전산망, 사법부 전산망 등 대규모 국가 기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활발히 영업활동을 펼쳐왔으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업 환경이 네트워크 컨설팅, 설계, 디자인 등 엔지니어링의 토탈 솔루션화로 급격히 진전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 사는 또 지난 8월, 미국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ODS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플라인트리, 입실론, 아카시아 등 각 분야의 선진업체와 잇따른 제휴를 통해 공공기관 등 특수 목적의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국내 네트워크 시장 환경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사옥 이전과 조직이 모두 정비되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大慶電機製作所, 교류 저속 동기모터 개발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존 모터와는 달리 저

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감속장치가 필요없

는 교류저속동기모터가 개발됐다.

大慶電機製作所(代表: 金榮振)는 2년간 20억원을 들여 연구한 끝에 회전속도가 기존 4극 3상 유도전동기의 1천8백rpm보다 훨씬 낮은 62,1백9,1백71rpm인 저속모터 3종을 개발완료하고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이 모터는 유도전동방식이 아닌 동기전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전속도가 정확하고 적은 전력으로도 기존 유도모터의 20배까지 토크(회전력)를 낼 수 있는게 특징이다.

또 토크를 임의로 설정, 작동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부하가 많이 걸려도 슬립현상이 없이

정속운동을 하고 과부하시에도 모터가 손상되지 않는다.

이밖에 위치제어가 가능하고 높은 토크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기어박스가 필요 없으며 기존 고가의 서보모터를 대체할 수 있는 모터다.

한편, 동사는 출력이 0.25마력에서 10마력까지 낼 수 있는 저속모터를 생산, 본격 판매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0.1마력에서 1백마력급까지 모터개발폭을 확대, 수요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